일본의 '신여성' 운동과 『세이또』

서 은 혜*

일본의 여성운동사에서 『세이또(青鞜)』가 지니는 의미는 무엇일까? 처음 이 잡지는 여성을 위한 '문예지'로 창간되었다. 하지만 그녀들이 그때까지 체험했던 굴욕적인 과거, 남성중심 사회에서 겪어야 했던 성적 도구로서의 역할이라든가 봉건적 가부장제 가정에서의 한갓 노동력에 지나지 않았던 인간으로서의 모멸감, 혹은 더 나아가 남들 앞에 드러내어 말할 수 없었던 불륜, 낙태, 매춘 등의 경험을 쏟아내기 시작하였을 때 이 잡지는 단순한 문예지의 영역을 뛰어넘기 시작한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당시 자연주의 남성작가들이 즐겨 차용하던 고백체라는 소설형식을 빈초기의 소설, 혹은 평론 등의 산문에서 두드러진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그들은 과거의 굴욕적 체험들 위에 새로운 뜻매김이 이루어지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걸고 싸웠다.

또한 그들은 일본의 전통적 문학형식인 단가라든가 새로운 시형식인 구어체 자유시라는 형식에 얽매이는 일없이 자신의 삶과 꿈을 절절히 토해내었고, 외국의 평론이나 문학작품들을 번역 게재하거나 희곡을 쓰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았다. 그들이 보여준 자유롭고 자립적인 삶의 방식이나 논의들은 거의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의 눈으로 보더라도 놀랍도록 참신하고 용기 있는 것들이다. 말하자면 『세이또』는 처음의 단순한 '문예지'로서의 영역을 훌쩍 뛰어넘어 명실공히 근대 일본의 여성해방운동의

* 전주대 교수

산실이자 이른바 '신여성(新しい女)'들의 자아확립의 장, 그리고 남성중심 사회에 대한 새로운 투쟁을 위한 병영으로서의 역할까지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잡지의 폐간 이후, 침략국가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와 억압 속에서 이 그룹의 여성들이 자신들의 최초의 신념들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창간자이며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히라츠카 라이쵸오의 사상적·이념적 변질과 그에 따른 행동변화는 너무나 현저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그가 당시 『세이또』에 게재되었던 엘렌 케이의 모성주의적 여성운동에 관한 글을 번역하면서 심대한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그 무렵 라이쵸오는 동거, 임신, 출산, 육아 등의 경험을 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 체험이 교묘히 맞물려 들어 그의 이념과 행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그들은, 당시 '다이쇼 데모크러시'라는 일본 국내의 분위기와는 이율배반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웃나라들을 침략하고 군국주의 국가의 확립에 여념이 없던 당시 일본남성들의 이데올로기에 그대로 휘말려 들었고 이른바 '총 뒤의 어머니(銃後の母)'라는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세이또』는 사회 전체를 휩쓸고 개개인의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마치 그것이 우리의 자발적 선택인양 착각하게 만드는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대항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깨어 있어야만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일본 여성운동사의 대표적 잡지인 『세이또』에 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1. 잡지명과 의미

잡지명 '세이또(青鞜)'란 영어의 'blue stocking'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

다. 1750년경, 런던의 몬테규(E. Montagu : 1720~1800)부인이 주도하던 클럽의 중심인물이었던 식물학자 스틸링플릿(B. Stillingfleet : 1702~1771)이 당시 일반적이었던 검은 비단양말 대신 푸른색 털양말을 신었던 것에서 그 모임의 별명이 되었고 나아가 문예취미라든가 학식이 있는, 혹은 이를 과시하는 여성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2. 발간 기간

1911년 9월~1916년 2월(월간지, 총 52호 발간)

3. 창간의 목적

"여류문학의 발달을 꾀하고 각자 천부의 특성을 발휘케 하며 훗날 여류 천재를 배출한다."(창간호 취의서 제1조) 즉 일본 최초의 여성들만에 의한 문예지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특히 통간 52호 속에 총 1700회의 소설을 연재할 정도로 소설은 대단히 중요한 장르였다. 그 가운데서도 초기의 고백체 소설이 그들의 운동사에서 지니는 의미는 각별하다. 그들이 고백체 소설을 쓰게 된 직접적 이유는 인습적인 관습과 도덕에 복종할 수 없는 자아를 발견했기 때문일 것이고 구도덕의 틀을 온몸을 던져 뛰어 넘었던 체험의 재검토와 뜻매김을 그녀들은 원했다. 새로운 여성해방사상에 의한 굴욕적 체험의 가치역전이라는 욕구, 바로 이것이야말로 그녀들의 고백을 향한 충동이었을 것이다.

4. 초기의 남성후원자들

4.1. 이쿠타 초오코오(生田長江 : 1882~1936)

당시 나루미(成美)여자영어학교 교사였던 이쿠타 쵸오코오가 이 잡지의 명명자였다. 니이체의 귀족적인 초속주의와 천재주의에 깊이 공명하여 『차라투스트라』(1911년 1월)를 창간하기도 했던 이쿠타는 당시의 자연주의 문학에 대항하여 독자적인 '신이상주의' '신낭만주의'를 이상으로 삼고 있었다.

4.2. 나루세 진조(成瀨仁藏 : 1858~1919)

히라츠카를 포함한 『세이또』의 발기인 5명 가운데 4명이, 이 잡지에 참가한 사람중 23명이 일본여자대학교의 졸업생이었다. 이 학교의 창립자이며 당시 교장이었던 나루세 진조는 일본근대 여성교육의 아버지이자 라이쵸에게는 정신적 아버지이기도 하였다. 라이쵸오에게 특히 영향을 미친 것은 그의 이상주의적 성향이었는데 그는 여성교육의 세 가지 원칙이 1. 여성을 인간으로 교육, 2. 여성을 부인으로 교육, 3. 여성을 국민으로 교육하는 것이라면서 이 세 가지 원칙의 순서를 바꾸어도 안 된다고 말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던 나루세도 이른바 '오색주(五色の酒)' 사건 이후 '신여성'에게 비판을 가하기 시작하여 히라츠카는 그와 결별하기에 이른다.

5. 대표적 여성 작가들과 작품

5.1. 히라츠카 라이쵸오 : 본명 히라츠카 하루코(平塚明子 : 1886~1971)

일본최초의 여성교육기관인 일본여자대학을 졸업한 25세의 미혼여성이었던 그녀는 아버지가 회계검사원 차장이었던 집안의 재정적 후원을 힘입어 다른 4명의 동인과 함께 『세이또』를 창간하였다.

특히 유명한 창간호의 선언문을 그는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다.

원시, 여성은 진정 태양이었다. 참다운 인간이었다.

지금, 여성은 달이다. 남에 기대어 살고 타인의 빛으로 반짝이며 병자처럼 창백한 얼굴을 한 달이다.

(…중략…)

우리는 숨겨져 버린 우리의 태양을 이제는 되찾아야만 한다.

"숨어있는 우리의 태양을, 가라앉은 천재를 드러내라"

이야말로 우리의 내부를 향한 끊임없는 절규, 억누르지도 지우지도 못할 갈망, 모든 잡다하고 부분적인 본능이 통일된 최후의, 전 인격적이고도 오직 하나뿐인 본능인 것이다.

元始、女性は實に太陽であつた。眞正の人であつた。

今、女性は月である。他に依つて生き、他の光によつて輝く、病人のやうな蒼白い顔の月である。(略)

私共は隱されて仕舞つた我が太陽を今や取戻さねばならぬ。

「隱れたる我が太陽を，潛める天才を發現せよ、」こは私共の內に向つての不斷の叫聲、押へがたく消しがたき渴望、一切の雜多な部分的本能の統一せられたる最後の全人格的の唯一本能である。

5.2. 이토오 노에(伊藤野枝 : 1895~1923)

이토오는 인습적인 결혼제도에 반발하여 가출한 뒤 여학생 시절의 스

승이었던 츠지 쥰(辻潤)과 생활하면서 그의 영향으로 『세이또』에 참가하였고 뒷날 라이쵸오를 대신하여 편집을 담당하는 등 여성해방운동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세이또』에 발표한 그녀의 소설 「제멋대로(わがまま)」에서는 종래에 여성의 악덕이라 여겨지던 변덕스러움, 정숙치 못함, 불복종, 질투 같은 욕구들이 실은 자각적인 인간의 당연한 욕구라는, 자신의 존엄성을 건 주장이 나타난다. 그녀는 또한 아시오(足尾)광독사건을 둘러싼 농민들의 고통을 접하면서 이를 계기로 사회정의에 눈을 뜨게 되었고 그때까지의 생활을 청산하고 무정부주의 사회운동의 기수였던 오오스기 사카에(大杉榮)의 반려가 되어 그를 도와 운동에 헌신하였으나 1923년 관동대지진의 혼란 속에서 오오스기와 함께 헌병대에 학살당했다. 겨우 28년간의 생애에 7명의 아이를 출산하였고 골드만의 『부인해방의 비극(婦人解放の悲劇)』(『세이또』 1913.2) 등의 번역과 「출분(出奔)」(『세이또』 1914. 2) 이하 10여 편의 창작, 그리고 10여 편의 평론을 남기는 불꽃같은 삶을 살았다. 모두 거칠긴 하지만 독특한 개성을 드러내는 작품들이다.

5.3. 요사노 아키코(與謝野晶子 : 1878~1942)

그녀는 엄밀한 의미에서 『세이또』가 배출한 시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미 러일전쟁기에 「너는 죽으면 안돼(君死にたまふことなかれ)」라는 제목으로 여순전쟁에 나간 남동생의 무사를 비는 반전(反戰)시를 발표함으로써 그 반국가적 대담성이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던 그녀는 일본 최초의 획기적 여류 신파 단가집인 『흐트러진 머리(みだれ髪)』(1901) 속의 절창

> やわ肌のあつき血汐にふれも見でさびしからずや道を說く君
> (보드란 피부 뜨거운 젊은 피엔 아랑곳없이 쓸쓸치 않은가요? 고고한 도학자여)

로 당시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인습과 도덕에 대한 과감한 도전, 연애지

상주의에 의한 인간 긍정 등이 드러나 있는 이 시로 그녀는 정열의 시인이라는 이름을 얻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와는 다른, 냉정하게 깨어 있는 그녀의 또 다른 모습을 『세이또』에서는 발견할 수 있다.

5.4. 치노 마사코(茅野雅子 : 1880~1946)

일본여자대학 국문과 출신인 그녀는 1905년 요사노 아키코, 야마카와 토미코(山川登美子)와 함께 『묘오조오(明星)』파의 3재원으로 세상에 나왔고 『묘오조오』의 동인인 쇼쇼(蕭蕭)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였다. 1921년부터 모교의 교수로 부임하여 말년에는 시인으로서가 아니라 교육자로 주로 활약하였다.

그녀의 시 몇편을 살펴보자.

女をばなぞ嘲けるや女より生れぬ人のあらじとおもふに
여자따위라, 비웃느냐 여자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이 없을진대

わが夢の世界より來し數萬の小さき蝶かもしら萩の花
내 꿈 세상에서 온 수만마리 조그만 나비일지도 몰라 싸리 꽃

時來ればさなぎ(蛹)も繭(まゆ)を噛みて出づ吾等はふるき世界よりとぶ
때가 되면 애벌레 고치뜯고 나오듯 우리는 낡은 세계를 날아 오르다

5.5. 오카모토 카노코(岡本かの子 : 1889~1939)

카노코는 1905년 요사노 아키코에게 사사하고 신시사에 들어갔으며 『묘오조오』에 기고를 시작하여 묘오조오파가 표방했던 낭만주의의 세례를 받았다. 1910년에 오카모토 잇뻬이와 결혼하였는데 그는 만화가로서 일세를 풍미하면서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고 그녀의 문학수업을 도왔으며 심지어 그녀의 숭배자인 청년들과의 동거까지 묵인하는 특이한 결혼생활

을 영위하였다. 1926년부터는 불교연구가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였고 1929년에는 세 식구와 동거자인 두 청년까지 함께 유럽여행을 했는데 4년 간의 이 여행에서 소설가 카노코가 태어났다. 동서고금의 박식한 문학적 교양과 심원한 불교사상, 그리고 선례가 없는 강렬한 나르시시즘에 의해 지탱되는 그녀의 현란하고 감각적인 문장은 독특한 자신만의 문학세계를 이룩하고 있다.

그녀의 단가 몇 수를 살펴보기로 하자.

折々はとざせる我の扉をばゆるめて君の入るにまかする
가끔씩은 닫았던 나의 문을 슬쩍 열어 그대 들어오는 대로 맡겨 두기도

悉く君に我をば投げたりと思へるあとにまた我のたつ
남김없이 그대에게 던져 버렸다고 생각하고 돌아서면 다시 서 있는 나

人妻をとり得る程の強さをば持たる男のあらば奪られむ
남의 아내도 빼앗을 수 있을 만큼 강한 남자라면 빼앗기고 싶어

たそがれの風に吹かれて來し人のうすら冷たき頬をくちづけぬ。
해질 녘 바람에 불려온 그 사람 싸늘해진 볼에 입 맞추다

やはらかく拭ふ男のかたはらにあるに甘ゆる涙なるかも。
부드럽게 닦아주는 남자 옆에 있어서 일까? 응석받이 눈물이 흐르는 것은

薄あかき片頬を見せて朝寢する君をゆたかにつつむ靑蚊帳
바알간 한쪽 볼을 보이며 늦잠자는 그대를 너그러이 품고 있네 푸른 모기장

1912년, 당시 와세다 대학생인 호리키리 시게오와의 사랑이 시작되면서 발간된 시집 『가벼운 질투』(か?)에는 다음과 같은 노래들이 들어 있다.

'강한 여성과 보호받는 남성'이라는 그녀의 도식은 이 노래들에도 생기 있게 드러나는데 간통죄가 엄연히 살아 있던 당시의 일본에서 이른바 불륜의 사랑을 거침없이 노래한 단가 몇 수를 더 소개하며 이 글을 마감한다.

力など望まで弱く美しく生まれしまゝの男にてあれ
강한 힘 따위 바라지 말고 연약하고 아름다운 태어날 때 그대로의 남자가 되렴

唇を打ちふるはして默したるかはゆき人をかき抱かまし
입술을 떨며 말을 못하는 귀여운 사람을 끌어안다

めづらしく弱き姿と君なりて病みたまふこそうれしかりけれ
보기 드물게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간 그대 앓아 눕는 거야말로 반가와라

같은 시기 『세이또』에는 다음과 같은 노래들도 보인다.

男より疲れてかへる裏街も
すこし夜露にしめりたる頃。
남자에게서 지쳐서 돌아오는 뒷골목길도
밤이슬에 약간 젖어있을 무렵

かくてもなほ女の我の足下に
縋る男かあはれゆるさん。
이렇게도 여전히 여자인 나의 발을 잡고
매달리는 남자 가여워라 용서할까